



김정환

- 개포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제6회)
-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I. 변명에 대한 변명

“.....결정적인 한 장면, 이라는 표현을 소설에 썼지만 요즘은 문득문득 삶에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것 따위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어떤 장면이 결정적이게 되는 것은 결국 그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내가 사후에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삶이 이렇듯 나의 해석에 의해 끊임없이 다시 쓰이는 서사일 뿐이라면 소설을 쓰는 행위는 결국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일에 다름이 아닐까...(중략) 나는 어쩔 수 없이, 온통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더라도 소설을 계속 쓸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 백수린, ‘고요한 사건’의 작가노트 中

2019년 3월 저는 전북대학교 로스쿨 3학년 헌법소송실무 강의실에 과목 담당 교수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다섯 글자입니다.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은 살짝 웃음으로 반응해 주었지만 우리 서로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공법기록형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업의 첫 한 시간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은 자기 마음을 잘 위로하고 시간을 버터내는 작업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건강과 성실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변호사가 되는 시험입니다. 빨리 변호사가 되고 싶으셔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자꾸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 괴롭고 외

로운 그 시간과 공간을 직면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는 감사한 기회다. 라고.” 말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야기했던 교재 및 강의 활용법과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다시 적어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숙제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적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고 또 결국 제가 치렀던 시험과 시간에 대한 감상적인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적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글입니다. 1999년 연세대학교 고시기숙사에 입실하면서 허영 교수님 헌법 책을 처음 샀던 것이 제 고시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얻은 것이 많은 고마운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나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했고 지난 시간에 미련을 가지는 저의 어리석음에 괴로웠습니다. 너무 굵이굵이 돌아온 길이 아닌가 자책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니 또 돌아왔던 길마다 제 소중한 시간과 공간이 담겨있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변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II. 법대는 싫어요. 정치학을 하고 싶습니다(대학시절)

“.....밀레니엄을 맞고 다시 여름으로 순환하는 동안에도 우리 관계는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새천년의 일상은 그 전이나 후나 허무할 정도로 같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날려 세상의 온갖 ‘소유’를 삭제할 듯했던 밀레니엄 버그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저 일상의 연속이었고 다만 놀라운 건 휴대전화 가격이 놀랍도록 저렴해져서 누구나 하나씩 갖게 됐다는 점이었다.....” - 김금희 ‘체스의 모든 것’ 中

아직도 1994년 정치외교학과 입학면접에서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 정외과에 오려 하는가?” “정치와 외교는 공동체의 공적인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이 조금 사적인 영역이라 느껴졌고 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잘잘못에 대한 부분이라 여겨져서 미래지향적인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알지만 당시의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좋았고 그 학문으로 저의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1990년대는 뭔가 급격하게 변하던 시기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웃 학교의 친구들과 우표를 붙인 학보로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2학년 때는 삐삐가 보편화 되었습니다. 씨티폰이 잠시 유행하더니 졸업할 무렵에는 핸드폰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동기와 선배들 누구도 취업을 걱정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지만 졸업할 때는 IMF 사태 영향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렵פות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일상을 지배하는 무언가를 공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복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 곧 통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커지리라 생각했고 현대사회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소수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수라 생각하여 복지정책 관련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서는 미국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GRE를 준비하였고 사회복지학과 정치학 그 어느 중간 즈음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대학시절에 좋은 단어와 문장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수업시간에 배운 “The Show Must Go On”은 힘들 때마다 저를 지탱해주는 근원이 되었고, 어느 날 학교의 벤치에 앉아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얻은 화두인 ‘지식’ ‘지혜’ ‘인연’이라는 단어는 이후 제 삶을 지배하는 단어가 됩니다. 운동주와 기형도의 문장들을 사랑하게 되고 김현과 장정일의 독서에 탐닉하며 아주 잠시 문학도로의 변화를 꿈꾼 적 있었으나 금세 소질과 재능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 III. 변호사 직업에 대한 도전과 좌절

“.....나는 추은주의 퇴사서류에 사인했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퇴직금 정산서에 ‘신속집행요망’이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경리과로 보냈다.....” - 김훈, ‘화장’ 中

대학시절 저에게 있었던 큰 사건은 1996년 노수석의 사망이었습니다. 당시 정외과 학생회장이었던 저는 노수석의 시신을 지키며 공권력의 무서움과 그에 대한 저항의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와 무효와 책임을 소리치던 사람들 틈에서 나는 더 크게 소리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법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렵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훌쩍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 계속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커져갔습니다. GRE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영어공부를 할 거면 더 어렵다는 사법시험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

각을 계속하니 GRE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대학원 도전을 잠시 미룬 채 귀국하여 학부졸업을 준비하며 결국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치라고 했지?” 결국 그 “가치가 법으로 표현되는 현대 사회라면 나는 법을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아무런 소속 없이 ‘백수’로의 외관을 가진 고시생이 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도전해 보기로 하였고 연세대학교 고시기숙사 생활을 거쳐 신림동에 작은 방을 얻어 고시생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중에 법학과 대학원을 들어갔던 것이 결국 2차시험 낙방 후 빠른 포기 후에 대학원 생활로 복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사회복지학 공부의 경험이 있고 국사를 좋아한다는 자신감으로 사법시험 1차시험, 1주일 뒤에 있었던 행정고시 사회복지직렬 1차시험에도 원서를 넣었다가 두 시험 모두 합격하게 된 것은 후에 독약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독약인 줄 모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2001년 사법시험 1차와 행정고시 1차를 모두 합격했지만 결국 2002년 사법시험 2차에 불합격하였고 2003년 행정고시 2차에도 불합격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떨어졌으면 2003년에도 사법시험에 재도전 했어야 하는데 2003년 봄에는 행정고시를 본다고 경제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나는 지리학 빼고 모든 사회과학을 다 공부해 봤다.”라고 농담처럼 자랑하지만 그것은 과거 저의 어리석음에 대한 스스로의 자조를 담은 말입니다. 2003년 행정고시에서는 행정고시 역사상 최초로 사회복지직렬에 ‘합격자 없음’이라는 결과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가 고시를 포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고시생활을 마무리하

고 대학원에 복귀하여 2004년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학원 생활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법 전문가가 되면 어딘가에 쓰임이 있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 걸듯이 위로하며 고시생활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낙방의 기억은 아픈 것이고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사법시험 2차시험 발표날 우리 스터디팀 모두의 이름이 있는데 저만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갑자기 코피가 줄줄 흐르더군요. 평소에 코피가 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나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거울을 보니 코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영영 우는 못생긴 제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기 힘든 기억입니다.

#### IV. 박사학위 취득과 대학에서의 사회생활

“애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인간들이란 게 말이다, 원래 다 이기적이거든. 태생적으로 그래.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란다. 그게 나라고 뭐 달랠겠니.” - 임헌, 叩頭中

처음에는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치 지향적인 헌법을 전공할 바에 차라리 정치학을 했을 텐데 내가 법학을 선택한 것은 조금 더 제도적이고 세밀한 법의 쓰임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행정법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홍정선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하여 학위를 하고 조교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날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가기 위하여 교수님 연구실 앞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데 교수님께서서는 아까운 시간에 왜 서서 가만히 있

냐? 여기 이렇게 책과 논문들이 많은데 책 제목과 논문 제목이라도 읽어라. 제목을 읽는 것도 좋은 공부다.” 라며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만큼 공부의 태도를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2006년 2월 말 백석대학교 행정법 강의를 맡았던 선배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갑자기 제가 대신 그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2006년 3월 첫 강의실에서의 설렘이 기억납니다. 사람들 앞에 섰던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대학에서의 수업은 또 다른 긴장이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잘되면 선생은 진심으로 기쁘고 제자가 잘못되면 선생은 진심으로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속상함을 알게 되고 거기에 저의 이기심이 더해져 강의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너희들이 연세대학교를 갔으면 홍정선 교수님께 행정법을 배웠을테고 서울대학교를 갔으면 박정훈 교수님께 행정법을 배웠을텐데 백석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김정환이라는 사람에게 행정법을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 주변 사람이 잘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타도 이기의 확장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업준비를 하고 수강생 중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과는 나머지 공부도 했습니다. 몇 학기 후에 다른 교수님께서서 년지시 시간강사가 너무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니 다른 교수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저에게 전해주시기 전까지는 나머지 공부하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시간강사 생활을 하며 논문을 준비하여 2010년에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부 대표 박사학위 수여자로 선정되는 영광과 함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연구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6년 백석대학교 최우수강의 교수상을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최우수 강사상 5년 연속 수상 등 총 12회의 우수 강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교수가 아닌 계약직 교수, 시간강사 신분이기에 매 학기 강의가 감사했고 매 학기 이 수업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강의 들어온 제자들에게 나보다 훌륭한 분들 강의 많은데 제 강의 들어주니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서 강의하고 학교행정 일을 도우며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V. 로스쿨 진학반 지도교수 생활과 로스쿨 진학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 윤동주, 병원 中

연세대학교에서의 제 강좌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로스쿨 준비반 - 지금의 연정법학회 -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연정법학회 제1기 학생들과 입시반과 세미나팀을 분리 구성하여 함께 커리큘럼을 만들고 리트를 분석하고 면접을 준비하며 보냈던 시간은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년여 간 연정법학회 지도교수를 맡아 학생들을 상담하고 진학지도 했던 것은 지금도 제 인생의 큰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학생들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여 지금은 저보다 선배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람도 매우 컸지만 로스쿨 입시 지도를 하게 되며 저는 계속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저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코피를 줄줄 흘리며 울던 저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였습니다. 제자들 몰래 토익시험을 보고 리트를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리트 시험장이었기에 제자들을 안 만나기 위해 경기도로 시험장을 신청하여 아주대학교에서 리트시험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리트와 토익에서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저는 제6기로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41살에 로스쿨 1학년이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다가 다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뻐합니다. 10년을 돌아 다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기뻐합니다. 처음 고시생이 될 때의 마음이 다시 떠오르며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소중하게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로스쿨은 저를 학생으로 받아준 참 고마운 곳입니다. 학교생활도 충실히 하고자 했고 학교와 동기 선배들에게 도움 되는 학생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인권법 동아리, 야구 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가장 행복한 기억은 수화동아리 Amazing Hands를 동기들과 함께 만들어 전북농아인협회에서 수화도 배우고 수화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던 기억입니다. 지금도 전북농아인협회의 여러 선생님은 저의 가장 고마운 응원자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기에 저로 인해 전북대학교 로스쿨이 조금 더 밝아지고 좋은 곳이 되길 늘 바랐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공법 관련해서는



늘 자료를 공유했고 스터디를 통해 동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학술위원장을 맡아 매주 변호사시험 준비에 관한 중요한 일정 및 필요한 정보를 공지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제가 6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조금 우스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저의 로스쿨 생활 3년을 저는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공부하는 거 아니더라...” 라고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심으로는 “나이 들어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VI. 변호사시험 낙방과 재도전

“.....K야, 나는 나이를 먹어간다는게, 어른이 된다는게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워.....의자 뺏기 게임을 할 때처럼 흥겨운 노래에 취해 의자를 놓쳐버리면 아무데도 앉지 못하게 되는게 아닐까. 외롭게 서서 의자에 앉은 아이들의 안도하는 얼굴을 바라보게 될까봐 나는 몹시 두려워. 나는 습관처럼 머릿속으로 K에게 보내는 편지를 천천히 적어내려 갔다.....” - 오현중, K의 어머니와 면회를 갔다 중

제6회 변호사시험 주간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헌법에서 상업광고 문제가 나왔는데 무엇에 썼는지 검열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다른 논점만 계속 쓰다가 시험 종료 몇 분을 남기고 답안지에 검열을 써넣으며 막 화살표를 여기저기 표시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민사기록에서는 시간 배분에 실패하여 상법 논점 전부와 청구취지의 절반 이상을 통백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민사사례에서도 상법을 오래 쓰게 되어 민사소송법의 쉬운 논점을 시간 부족으로 못쓰게 되었고, 환경법도 조문을 오래

찾으며 당황하게 되어 답안 구성을 망쳤습니다. 겨우 면과락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체력을 전혀 과약하지 못하고 있어서 과거 20대에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2차 시험 볼 때의 기억만을 가지고 첫날 둘째 날을 2시간씩만 자고 공부하였다가 소중한 휴식일을 종일 잠만 자는 어리석은 행동도 하였습니다. 민사기록형을 볼 때 심지어 이 중요한 시험장에서 졸음을 느낄 만큼 체력의 부족을 절감하였습니다.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체력은 정신력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을 망쳤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하였으나 합격자 발표 날 제번호는 없었습니다. 1년간 학술위원장이라며 동기들에게 여러 정보 제공 및 수험안내를 해오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로스쿨이라는 곳이 현재 의자 뺏기게임을 하도록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있음에도 저는 의자 뺏기 놀이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의자주위를 돌며 부르는 노래에 더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시며 그렇게 힘든 수험공부를 할 필요 있니 그냥 로스쿨 생활을 좋은 경험이었다 여기고 시험은 그만 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실 때는 전화를 끊고 평평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마다 마지막에 결과가 안 좋은 제게 시험징크스가 생기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불합격 결과를 받아두고 난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보아야 하는데 책을 펴면 한 페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고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겠고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줄줄 나는 현상이 생기더군요. 시간은 5월이 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읽지 못하

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읽기 중독이라고 할 만큼 늘 읽는 데 익숙했는데 갑자기 책을 펴면 심장이 쿵쾅거리니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로스쿨에 온 것이 잘못된 것인지,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을 다 잘못하기만 한 건 아닌지 생각하며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티브이도 스토리가 있는 것은 집중하기 힘들어 짧은 내용이 나오고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TV동물농장과 세상에 이런 일이란 계속 봤습니다. TV동물농장 3년 치를 다 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글씨를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 무어라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었던 소설을 다시 읽고 그 주인공들의 슬픔을 생각했습니다. 추리소설을 읽었습니다. 추리소설은 잘 읽었습니다. 법 책은 한동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한 문장이 나오면 슬펐고 이 내용이 시험장에서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어느덧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몸에 편안한 기운을 주어야 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오래 걸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누워있으면 땅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재시 공부를 한국방송통신대 전북지역대 학습실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국방송대 학생(영문과)이었고 선생이였었기에(법학과) 가능했습니다. 놀아도 학습실에 앉아서 놀자는 생각을 하며 추리소설을 들고 매일 학습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부터 다음 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추석 폐관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도 빠지 않고 일요일도 매일 아침 8시 학습실 문을 제일 먼저 열고 들어가고 밤 10시

에 불을 끄고 나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다시 시험을 보는 날이 왔습니다. 첫날 공법 사례부터 힘들었습니다. 조례가 나왔는데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럼 처분적 조례로 포섭하면 보충성 요건 각화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험문제에 각하가 답인 것이 나왔을까 생각하여 주어진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렇게 보면 처분적 조례이지만 이렇게 보면 일반성 추상성을 인정할 수 있으니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헌성 검토도 법률유보부터 차근차근 검토하였습니다. 헌법을 너무 공들여 써서 행정법 시간이 부족하여 행정법 5문을 두어 줄 밖에 못쓰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첫날 이렇게 저의 주력과목인 공법 사례를 어렵게 보고 제대로 못 쓴 느낌이 들게 되니 다음 시험 시간부터는 시간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점수를 받아보니 헌법 사례는 76점이 나왔고 행정법도 5문을 거의 통백으로 냈음에도 60점이 나왔더군요. 공법 사례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 저에게는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역시 사안의 포섭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기계적인 답안지보다는 주어진 법령의 특징을 잘 분석하고 과잉금지원칙에서도 대안을 잘 제시한 것이 고득점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민사기록은 문제를 받고 보니 채무부존재확인의 경우는 읽으며 논점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다른 논점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난 시험에서 민사기록 청구취지 반통백과 상법 논점 통백을 냈던 것이 불합격의 원인이었기에 이번에는 무조건 답안지는 채우자는 마음으로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청구취지를 예쁘게 정리할 수 없어서 11까지 변호를 붙여가며 잘라서

썼습니다만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답은 오답일 지라도 뭔가를 다 썼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100점 가까이 점수가 나왔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환경법은 예상 문제였던 것이 나왔고 중요한 한자를 비교까지 하며 (조정이 한자로 調停과 調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답안을 채우고 만족스럽게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날, 인터넷에 발표가 뜨길 기다리며 “좋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합격하면 좋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워드에 계속 써넣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제 번호가 있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써넣었습니다. “좋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VII. 공부를 대하는 자세와 과목별 공부법

“.....‘작년에 미미미도 레레레시, 5번 「운명」이 나왔으니 올해는 6번 「전원」이 나올 차례다. 주제가 미파라 솔파미레 솔도레 미파미레니까 꼭 외워둬라.’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 체제에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 기연가미연가하면서도 주제 두어마디를 외워둔 덕분에 우리는 6번 교향곡을 들어보지 않고서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다.....” 박현욱, 벽 中

### 1. 공부는 끊임없이 자신을 위로하는 과정

정말 오래 걸려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참 많은 시험을 보았습니다. 300학점이 넘는 학점 이수를 하고 박사논문을 쓰고 시험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부의 특징에 대해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해야 할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부는 마음으로 하

는 것이기에 기빠도 공부가 안되고 슬퍼도 공부가 안되니 끊임없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험 공부에서 양이 늘어나는 것은 최악입니다. 재시를 준비하며 객관식은 유니온 기출문제집만 보고 민법과 상법만 객관식 문제집을 하나씩(민법 - 황보수정 강사님, 상법 - 교수 11인 공저) 추가하여 보았습니다. 매일 오전에 객관식을 봤고 이렇게 양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객관식 1회독이 10월에서야 끝나더군요.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오전 객관식을 계속 풀고 있는 제 모습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이 시험은 가장 어려운 민사기록형과 가장 쉬운 선택법이 특점의 키라는 것을 깨닫고 두 과목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저는 초시에서 민사기록을 폭망 수준으로 망했기에 민사기록형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매주 하루는 민사기록 공부로 할애하고 모의고사를 ① 채점기준표를 꼼꼼히 내용을 살피는 공부를 하고 ② 답안을 써보고 ③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듣고(박승수 변호사님과 신정훈 변호사님의 강의를 번갈아 들었습니다) ④ 다시 채점기준표를 보고 내 답안지에 스스로 첨삭하는 방식으로 한 회분을 하루에 4회독 하며 학습했습니다. 그래도 9월이 되고 10월이 되어도 민사기록 실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기록을 함께 써보는 동기와 후배 몇 명이 있었는데 제 답안은 늘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공부기록형, 형사기록형을 쓸 때와 민사기록형을 쓸 때 제 표정부터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사기록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민사기록에 시간을 할애하



고 공부하며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20회분 정도의 변시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공부한 후 그 중 계속 반복해서 볼 6회 분량의 민사기록형 답안과 청구취지 목록을 늘 가방에 넣어 다니며 수시로 반복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시간 직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비했는데 망치면 난 어쩔 수 없는 거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고 문제가 어려웠지만 뭔가를 계속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환경법은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전부를 채점기준표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러 가장 두꺼운 박영사의 박균성·함태성 교수님 공저 환경법 교과서에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두꺼운 교과서지만 밑줄 긋고 정리하면 요약서와 분량상 큰 차이가 없었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되는 것이 많아 요약서보다 좋았습니다. 선택과목은 이 시험 모든 과목 중 유일하게 “이 정도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다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사례형 시험 중 단일 과목 중 민법 다음으로 배점이 큰 과목입니다. 또한 선택법이 안정적이어야 변호사시험일 휴식일에 온전히 민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법을 공들여 정리해 둔 것이 시험 직전 시간에 쫓길 때 많은 위로가 되었고 실제로 휴식일에 민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법에 거의 기본과목 수준의 시간을 투자하였는데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2. 건강관리

초시 때 수면시간 배분 실패 및 시험장에서 졸리고 어지러운 증상까지 경험했던 터라 재시 때는 시험 5일을 버틸 체력이 없으면 합격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건강관리를 하였습

니다. 비타민과 유산균 등을 챙겨 먹었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메가쓰리와 견과류 홍삼과 감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샤오미밴드를 차고 다니며 매일 8000보를 채우고 귀가하였으며 독감 예방주사도 맞았습니다. 식사도 제가 좋아하는 밀가루 튀김류를 끊고 담백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습니다. 요즘 불규칙한 생활에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다시 살이 찘습니다. 가장 힘든 수험생활 때 제게 몸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였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건강관리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 일에는 지난 시험과는 마음을 바꿔 평소 6시간 정도였던 수면시간을 오히려 1시간 늘려 7시간씩 자고 시험을 봤습니다.

## 3. 글씨와 답안지 작성

변호사시험은 엄청나게 빨리 읽고 빨리 써야 하는 시험입니다. 저는 글씨가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답안을 쓰다 보면 늘다 쓰기 전에 종이 찢고 연습으로 손은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펜을 왼 손가락 끝 마디에 새로운 굳은살이 박이도록 매일 답안지를 썼지만 글은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들보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는 답안지를 3면 반만 채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4면을 꼭 채우는 게 기본이라지만 저는 4면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60분을 써야 합니다. 읽고 생각할 시간 10분을 확보하려면 3면 반 전략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시험일 첫날 공법 사례에서 헌법 문제에 당황하여 여러 가지를 자세히 쓰다가 75분 정도 걸려 4면을 꼭 다 채우고는 오히려 행정법 5문을 거의 통백으로

내는 황망함을 겪고서 다시금 “나는 세면 반만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되뇌며 나머지 시험 시간은 시간 배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글씨가 느린 분들은 답안을 짝 채워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시간 배분에 실패하다가 답안지 반면을 포기하고 나니 시간 배분이 괜찮아져서 좋았습니다.

#### 4.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

이 시험은 변호사가 되는 시험이기에 결국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힘든 수험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메모장에 변호사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써보았고 힘들 때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처음 바라던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좌절했던 기억도 떠올리며 지금 내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위치임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자 라는 낙관은 사실 낙관이 아니라 체념과 같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긴 수험생활을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제자, 후배님들에게도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자주 떠올려 보시라는 점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시험은 ‘변호사시험’이니까요.

#### 5. 과목별 공부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식은 유니온 기출 문제만을 보았고 민법과 상법만 한 권씩 추가하여 보았습니다. 최신판례집은 가장 얇은 것을 골라 역시 유니온을 보았는데 오히려 제가 판례 본문을 찾아 보충한 것이 많아 시간 관리에는 다른 학원 강사편집 교재보다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민 변호사의 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은 주문을 함께 편집해 주서

서 읽으며 공법기록형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과목 법전협 모의고사 채점기준표를 바이블과 같이 여기고 보았으며,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수험가 소식을 놓치지 않고 교수님들의 최신 사례연구 등을 참조하기 위하여 『考試界』 잡지를 매달 구독하여 보았습니다. 그 외 과목별로 제가 보았던 교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기본을 공부하기 위해 봤던 기본서 등은 생략하고 재시 때 ‘수험용’으로 봤던 책만 제시하겠습니다.

##### (1) 헌법

꼭 써야 하는 문장을 김유향 변호사님 헌법 300 중 일부를 골라 정리하였고 교수 8인 공저 사례집을 추가하여 보았습니다. 김건호 강사님 부속법령집을 보았는데 객관식 시험 대비와 관련 도움이 되었습니다.

##### (2) 행정법

행정법은 홍정선 교수님 저서를 과거 제가 교정 수정하였었고 저의 수업 교재로 써왔었기에 계속하여 홍정선 교수님 교과서를 보았고 김기홍 강사님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 (3) 형사법

형법은 이인규 박사님 요약서, 형사소송법은 홍형철 변호사님 요약서를 보았고 형법, 형소법 모두 신호진 박사님 ‘사례형 판례정리’를 보았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록형은 노수환 교수님 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보았습니다.

##### (4) 민법, 민사소송법

민법 민소법 모두 윤동환 강사님 요약서를 보았고 메가로이어스 진도별 사례 기출 문제

교재를 최용구 변호사님께서 강의하신 것을 듣고 정리하였습니다. 최용구 변호사님의 강의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신정훈 변호사 요건사실론과 강성민 변호사의 민사기록 엑기스에서 필요 부분을 체크하여 보았습니다. 민법 객관식을 위해 황보수정 강사님의 객관식 문제집을 보았는데 이는 변호사시험용 교재가 아니었지만 민법의 기초인 조문 문제와 사법시험 법원행시 기출문제가 잘 수록되어 있어 선택했습니다. 가족법은 곽낙규 강사님의 요약서를 보았는데 필요한 사례문제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 (5) 상법

행정법, 환경법과 함께 교수 저로 정리한 과목입니다. 송옥렬 교수님 저서는 정말 읽으면 강의를 듣는 듯한 서술로 되어있어 좋았습니다. 이종모 박사님의 상법단문사례정리를 초시 때도 재시 때도 강의의 도움을 받으며 보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음수표의 사례형 쟁점은 이종모 박사님이 보라는 것만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 (6) 환경법

박균성·함태성 교수님 공저 교과서를 보고 김홍균 교수님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레인보우, 유니온도 사서 필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김홍균 교수님 프린트'로 유명한 특강 자료집을 구해서 그 내용을 전부 교과서에 체크하며 보았습니다. 환경법의 법령 변화 등 중요 내용은 제가 직접 프린트를 만들어 연정법학회 출신 로스쿨 재학생과 전북대 환경법 선택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 VIII. 글을 마무리하며

“과거 납뽀이가 다녔던 독서실 건물. 올라다 보면... 지금은 피씨방이 들어서 있다. 담배 한 대 물고 담벼락에서 묵묵히 기대고 있는 승민. 짙짙거리며 나오는 어린 고등학생들. 승민이 길게 내뿜은 담배 연기가 밤하늘에 퍼진다.”  
이용주, 건축학개론 각본 SCENE 92.

감기에 시간이 약이라는 치료법은 꽤 많은 삶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변화와 성취를 위해서는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시간을 버티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 정환아 이렇게라도 하면서 버티어지...”라고 늘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운도 중요합니다. 저는 6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헌법이 40점대였고 7회 변호사시험에서는 76점이었습니다. 민사기록은 70점대에서 거의 100점대로, 환경법은 60점대에서 90점대로 올랐습니다. 어떤 것이 저의 진짜 점수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헌법과 환경법의 경우 제가 초시 때에 비해 실력 자체가 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시험 시간 마칠 무렵 검열이 떠올라 허둥대던 정환이를 문제지 반자마자 법률유보가 떠오른 정환이가 위로하며, 좋은 점수는 시간을 잘 버텨다는 의미의 선물 같은 것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에게 선물 같은 고마운 사람도 많습니다. 노혜성 변호사는 제 공부의 여러 가지 부분을 챙겨준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조용훈, 박정환, 이진성, 도현민, 김양석은 특별히 고마운 친구입니다. “나도 좋은 일 좀 하자.”라며 저를 도와주는 것을 좋은 일로 생각해 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한국방송대에서 매일 청소를 도와주시던 박숙자, 오강

자 두 여사님께는 특별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고 저는 감사의 마음에 늘 인사 드렸었지요. 매일 나오던 제가 어느 날부터 만나오자 혹시 어디 아픈게 아닌지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합격 소식을 전하러 과일을 사 들고 인사 갔을 때 그렇게 반가워 해주시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문소산, 오유진, 홍강국, 김만권, 유호곤, 김종찬, 이계일, 정방수, 오재훈, 조종욱, 장휘, 유인태, 신동우, 이호철, 김승란, 김순남, 김정화, 안진희, 진석원, 손현, 장성운, 임은정, 정대식, 최성진, 지동혁, 정지광, 정근혁, 이진민, 손용신, 이연호, 김상준, 서정민, 최종건, 전광석, 안강현, 김성수, 이철우, 이종수, 손창완, 송영희, 조정화, 한성주, 한상우, 조건웅, 지귀연, 광노현, 임성택, 박숙경, 박옥순, 김명연, 박영희, 김성연, 천희성, 홍재우, 조성대, 신원일, 이오순, 강지현 선생님, 교수님, 친구님, 변호사님, 판사님, 검사님은 로스쿨 입학 및 생활에 많은 응원을 해 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를 직접 지도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홍정선, 송기춘, 최승원, 양승함, 김기정, 이명철, 강석철, 노진영, 정영선, 노태선, 신미용 교수님 판사님 검사님은 제가 평생은사로 모시며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분들입니다. 연세와 전북에서 입은 학은에 감사하며 성함을 더 많이 쓰고 싶지만 지면 관계로 쓰지 못함의 아쉬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제자들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제자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선생으로서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은 저를 여러 가지로 버티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큰 힘을 얻었고 감사할 곳은 가족입니다. 셋별 초롱 두 동생의 응원과 부모님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공부를 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며 제가 변호사시험 보는 첫날 돼지 11마리 꿈을 꾸셨다는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인연’이 닿은 분들에게 저의 ‘지식’이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지혜’가 그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수험생분들의 마음속에도 위로와 다행히 자리 잡기 바랍니다.

※ 글쓴이는 현재 법무법인 도담의 변호사이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객원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강사로 강의 중이다.